



# BERITA MALAYSIA



2009년 4월 27일



제 1 호

## RaonAtti

### BERITA MALAYSIA 의 첫 걸음!



**4월 27일** 라온아띠 말레 전공하고 있는 채해원 단원이, 영문 이시아 팀은 그 들의 소식지 'BERITA MALAYSIA' 1호를 발간하였다.

본 소식지는 지난 4월 21일 팀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파견 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고민하던 중 발간을 결정하게 되었다.

소식지의 제호인 'BERITA MALAYSIA' 는 바하사 말레이어로 'Malaysia News'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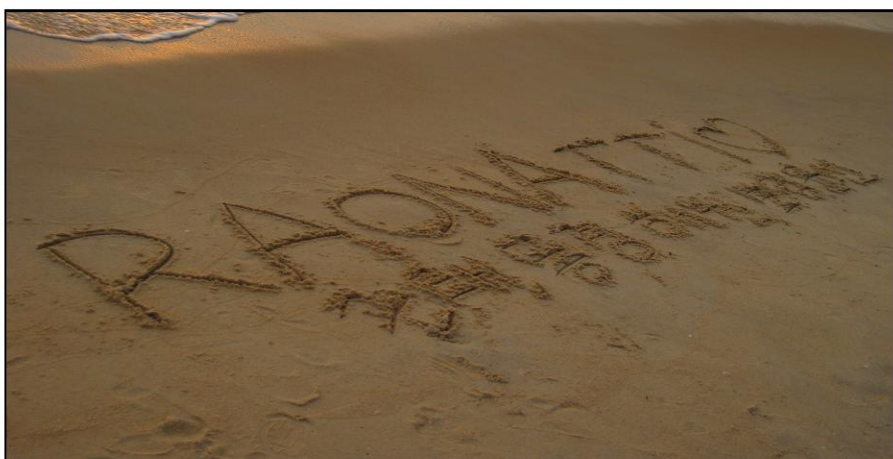
본 지의 편집장에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채해원 단원이, 영문 판 편집장에는 영문학을 수학중인 김동경 단원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소식지 발간으로 파견기관 및 현지 YMCA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본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친지들에게 활동소식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팀 내 활동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어 추후 파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창간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그 들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김근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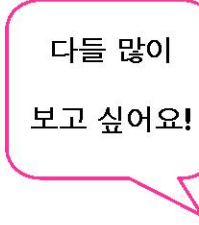
일단  
뛰고 보자!



내일  
뭐 입지?



살도 타고  
살도 찌고  
토실토실...



다들 많이  
보고 싶어요!



해언스 럽게  
여기서 잘 지  
내고 있어요!

## PASAR MALAM의 매력에 빠지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부터 10시까지 후탄 멀린 탕(Hutan melintang)에서 파사 말람(Pasar malam)이 열린다.

파사 말람은 한국의 칠일장과 매우 유사하며, 후탄 멀린 탕 외에도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열린다.

파사 말람에서는 과일과 생활용품은 물론 말레이 길거리 음식, 말레이 민간요법 재료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

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운이 좋다면 상인들이 간이 사당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상인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파사 말람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고, 말레이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말레이시아적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곳의 파사 말람은 숙소와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단원들은 월요일마다 파사 말람을 찾아 과일과 음식재료 등을 사고 있으며, 말레이 문화도 맘껏 느끼고 있다. **채해원**

## 우리의 친구 Trudy 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부터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Trudy와 함께 살고 있다. 몇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개인적인 소개를 바란다

이름은 Trudy Hooi William, 22살이고 Kota Kinabalu 출신이다. 4월 12일 Lumut에 병원에서 실수를 마치고 또 다른 실수를 위해 베다니 홈에 오게 되었다. 베다니 홈에서 물리치료사 실습학생으로서 장애인들의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다.

### 벌써 이주일정도 같이 지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지금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많이 느낀다. 비록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 리온이띠 친구들의 장점이니 단점을 말해달라

한국인 친구들은 나라의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친구들의 서로의 대한 이해심과 나라의 대한 자긍심이 부러웠다. 하지만 간혹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한국문화의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끔 그들이 느끼기에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

### 실례일 수도 있지만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느끼는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은 모든 불이익을 견뎌야만 한다. 항상 정부는 말레이 족에게 우선권을 주고 결정권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을 보다 강하게 하고 독립적이게 만든다. (인도계 말레이시아인 친구들 역시 소수 민족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에 비슷하게 불만을 토로했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들까지도 친구로서 물어볼 수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다민족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모습이 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지만, 비 말레이 족에 대한 배려가 어떠한지 정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다. **김동경**

# 'Event'



## 베다니 홈 친구들 Theme Park 로 ~

 **지난** 18일(토요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워터 테마파크 선웨이 라군에서 KIWANIS Club에서 주최한 어린이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초청받은 수백 명의 특수 시설 어린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참석하였으며, 베다니 홈에서는 19명의 아동이 함께 하였다.

우리 라온아띠는 이번 행사에 각각 2명의 아동들을 돌보며, 이 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베다니 홈 어린이들은 파도풀, 인공 바닷가, 워터 슬라이드 등을 뛰어다니며, 그간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여건으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곳에서 맘껏 즐겼다

이 날 봉사한 채해원 단원은 “신체가 불편한 친구들을 챙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즐겁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 아동들에게 즐거움 이상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를 경험을 하는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김근태

## Group Home 을 방문 하다

 **그룹 홈**은 베다니 홈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작은 공동체를 목표로 세워졌다. 총 4곳이 있으며 테룩 인탄(Teluk Intan)에 1곳, 베다니 홈과 라이트 하우스 사이에 3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룹 홈은 마을 안에 있으며 한 집에서 6~8명의 베다니 홈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룹 홈마다 3명의 스텝이 있고 스텝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저녁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그룹 홈의 학생들은 시간표에 맞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치 메뉴도 짜여져 있었다. 또한 청소당번을 정하여 학생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었다.

지난 4월 16일에 말레이시아 팀은 베다니 홈과 라이트 하우스 사이에 있는 그룹 홈 중 한 곳을 다른 해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베다니 홈의 선생님과 다른 그룹 홈의 학생들이 먼저 도착하여 말레이시아 팀을 포함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맞아주었다.

이날 그룹 홈에서는 호주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레크레이션 시간이 진행되었고, 그룹 홈의 학생 및 스텝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주었다. 함께 웃고 즐기며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김보영

**Address** Bethany Home

Simpang empat, Hutan melintang

36400, Perak, Malaysia

**Tel** +60 17 294 3915, +60 17 316 9349

**Email** raonatti.malaysia@gmail.com

## 우리는 모두 CHAMPION!!



**지난** 4월 25일, 테북 인탄 공설 운동장에서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이 개최되었다. 스페셜 올림픽은 베다니 홈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로, 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에 걸쳐 기본적인 행사준비에서 학생들 경기종목 연습까지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은 스페셜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왔다.



이번 스페셜 올림픽에는 베다니 홈을 포함한 7개의 특수학교가 참가하였다. 더불어 학생 부모님들, 행사관련 인사들까지 참석하여 운동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후 2시, 뜨거운 태양빛이 절정에 달했을 즈음, 스페셜 올림픽의 그 성대한 막이 올랐다. 관악대의 경쾌한 반주에 맞춰,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하였다. 베다니 홈 학생들의 유니폼은 생동감의 상징인 녹색이었다. 경기 종목은 50m, 100m, 200m 달리기, 400m 계주, 25m 걷기, 투포환, 소프트볼 던지기, 멀리 뛰기 등 총 8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스페셜 올림픽의 슬로건은 ‘이기자. 그러나 이길 수 없다면,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이었다. 단순히 이기기 위한, 메달의 색깔을 논하기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참여하고, 함께하고, 시도하는 용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1등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결승점을 통과한 모든 아이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스페셜 올림픽의 정신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의 흥미진진함, 경쟁, 치열함이 없었던 게 아니다. 여느 보통의 올림픽처럼 서로를 자극하는 경쟁이 있었다. 때로는 다른 학교와, 때로는 같은 동료 학생들끼리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보다 소리쳐 응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히, 100x4m 계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일어나 힘껏 자기네 팀을 응원했다. 스페셜 올림픽 모든 참가 팀이 참여한 경기였던 만큼 제일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경기는 ‘25m 걷기’ 경기였다. 무슨 ‘걷기’가 올림픽 종목이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체적 장애로 인해 혼자 걸기조차 쉽지 않은 학생들에게 걷기 경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천천히 한 발자국 내딛는 학생들의 모습은 여느 육상선수와 그 속도를 비교할 순 없지만 그 모습 자체는 박수갈채를 받기에 충분했다.

각 경기가 끝난 뒤에는 메달 수여식이 이루어졌다. 비록 진짜 메달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성취감, 보람, 뿌듯함을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고, 그들은 모두 챔피언이었다.



이번 스페셜 올림픽의 총 책임자인 자야싱(Jayasingh)은 ‘무엇보다도 베다니 홈의 모든 아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는 말과 함께 스페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 일한 모든 교사, 봉사자 그리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윤선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s)은 무엇인가요?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들이 신체적 능력을 기르고, 스포츠 연습과 경쟁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현재 180여 개국에서 250만 이상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세계 스페셜 올림픽은 2년마다 개최되며, 다음 세계 스페셜 올림픽은 2011년 아테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www.specialolympic.org](http://www.specialolympic.org))